

장백산천지

제 49 호

2007년 9월 7일

금요일

파룬궁을 비방하는 각종 거짓말에 대한 해석 (련재-2)

넷째: 자아를 두려워하는 '정권 보위류(保权类)'

파룬궁 진상에 대하여 진정으로 명백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앞의 3 가지 종류의 거짓말로는 효과가 없다. 그리하여 중공은 거짓말의 심도를 '더 깊게'해야 했다. 당문화에 몇십년 동안 길들여진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습관적으로 '중공 정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여 중공으로 하여금 '정권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그 어떤 행위와 사상이든 모두 '필연' 적으로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군중들의 이와 같은 '사상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중공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에 '당과 군중을 쟁탈'한다는 커다란 정치모자를 들고 나온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자각적'으로 중공 정권을 수호하는 각도에서 '중공을 이해'하려고 한다.

다섯째: 민족의식을 이용한 '반중화류(反华类)'

파룬궁 수련생들이 전 세계적인 범위로 진상을 알리다 보니, 전 세계가 파룬궁의 반박해(反迫害)를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중공은 이를 해석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박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중국인들에게 탄압이유를 만

들어 주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룬궁을 지지하고 박해를 질책하는 모든 력량을 모두 '반화세력'이라고 모독하면서 "도리어 반화세력의 도구로 타락했다"는 등의 모자를 파룬궁에 씌웠다. 특히 『9 평 공산당』으로 일어난 '3 퇴' 대조류로 인하여 중공이 해체되어 멸망하는 추세가 뚜렷해진 지금, 이런 '반중화'라는 거짓말은 '중공'과 '중국'을 똑똑히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려는 것이다

여섯째: 부인할 수 없는 '거짓말 류(谎言类)'

점점 박해 진상이 더 많이 폭로되고 있음으로 하여 파룬궁 박해 죄행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중공은 이미 두 손에 무고한 피해자의 선혈이 가득 묻은 흉수의 진면모가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발뺌하려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폭로한 죄행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한다. 예를들면 참혹하고도 생생한 박해 사례; 고령영 얼굴훼손사건, 료원화 혹형재현 안건, 위형염 강간사건, 파룬궁수련생 생체장기적출 사건 등에 대해 중공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식의 발뺌은 이미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여 버렸다.

장백산에 나타난 "불광"



지난 8월 19일, 끊없이 이어진 장백산맥에 한 그림자가 하나의 7색광환(光环)에 워싼 불광(佛光)이 나타났다. (윗사진) 많은 관광객들은 보기드문 장백산에 나타난 이 불광을 마음껏 흡상하고 찬탄했다.

일본 도우호쿠(東北)대학 축제에서

일본 센다이(仙台)에 자리잡은 저명한 일본 도우호쿠대학 건교 100주년 축제에 당나라 전통 복장을 한 파룬궁수련생들이 표현한 파룬궁 공법동작은 각 나라 학생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그들은 저마다 파룬공법을 배우고 체험했다.



축제에서 일본 학생들이 파룬궁을 배우는 모습

만화<정의신광(正义神光)>



세계에서 순회전달활동을 시작했다.

인권성화활동의 목적은 중국의 인권박해 특히는 중공이 파룬궁학원을 혹형하고 학살하며, 생체장기적출한 죄행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중시를 불러일을 키 것을 호소했다.

倫회를 믿는 바톤장군

미륙군상장 바톤은 제 2 차세계대전시기에 동맹군의 저명한 장령(将领)이였다. 그는 전세(前世)



에 가태지 명장 한니브를 위해 힘들고 고로마 병사였으며 나폴레옹의 부하였고 동로마 베리사르 장군의 기병이었던 자신의 류회전생(轮回转生)을 잘 알고 있었다.

제 2 차세계대전때 바톤장군은 부대를 거느리고 북아프리카사막지대에서 독일군과 싸웠다. 어느 하루, 한 프랑스군관이 작전정황을 검사하려고 그를 차에 앉히고 전방으로 가는 도중 바톤장군은 갑자기 운전수를 보고 차방향을 돌리게 했다. 프랑스군관은 아리송해져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요.>라고 말하자 바톤장군은 <그곳은 곧 전쟁터지만 지금의 전쟁터가 아니요.>라고 말했다. 바톤장군은 그들을 이끌고 2 천년전의 고대전쟁터로 왔다. 고대전쟁터에 매혹된 프랑스군관은 바톤장군에게 <당신은 이곳을 어떻게 알니까?>하고 묻자 바톤장군은 <난 로마대군을 따라 여기에 온적이 있소.>라고 대답했다.

바톤장군의 전쟁에 대한

많고 많은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바톤장군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전세의 경력에 대해 더 고명한 론술이 있었을 것이다.



박해받은 초경송의 신체

길림대법제자 초경송(肖劲松)은 9대 음마하로동교양소 1 대대에서 법륜공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박해를 받고 세상을 떴다.



초경송



박해 후의 초경송



연변박해소식

■ 지난 8월 11일 오전 7 시경, 연길시 대법제자 소명영(邵明英)은 장춘시 목단원내에서 광광객들에게 파룬궁진상 CD 를 나누어주다 장춘시 조양구 동조양로 파출소 악경 정창(程昶)과 장발빈(张发斌)에게 랍치되어 지금 장춘시공안국 제 3 간수소에 갇혀 모진 박해와 심문을 받고 있다.

■ 화룡시 아동쇠뇌반은 파룬궁학원 7 명을 쇠뇌반에서 박해를 하였고 그중 5 명을 그들과 태협하였다고 믿어 집으로 먼저 돌려 보내고 나머지 2 명에 대하여 태협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속 박해를 가하였다.

■ 룽정시 개산툰의 한 법륜공진상자료 전달이 최근 악경들에게 파괴되였고 파룬궁학원 왕모모(30 여세)는 룽정시공안국 악경들에게 랍치 되였다. 상세한 정황을 아는 분들은 악경들의 박해를 폭로하여 탄압을 중지하기를 바란다.

악보 받은 부국장 김승관

팔가자삼림공안국 부국장 김승관(金升官)은 장기간 중공의 지시에 따라 대법제자를 박해했다. 2006년 7 월 연길시 북대시장에서 류리 걸식하는 대법제자 정무지(郑穆芝)를 랍치하여 팔가자로 돌아오는 길에서 차사고로 즉시 2 명이 죽었다.



法网恢恢疏而不漏

2007년 7 월, 운전수 호승리는 김승관을 기소했다. 리유는 호승리에게 면회증이 없고 차는 밀수차였고 김승관이 그를 시켜 차를 몰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김승관이 법륜공 박해로 인하여 악보를 받은 결과이다.